



김진호 회장이 청와대를 방문, 문재인대통령과 악수를 하고있다.

김진호 회장, 청와대 방문... 문대통령과 안보현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7월19일 김진호 향군 회장과 성우회장, 육사총동창회장 등 예비역 군 원로들과 청와대 본관에서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예비역 군 주요 인사들과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소통을 위해 마련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뒷받침하는 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관문점 회동을 통해 비핵화와 평

화정착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여건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남북미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 원로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셨기에 평화를 향한 길을 걸어 올 수 있었다”며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향한 여정에 변함없이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호 회장은 남북미 정상회담을 큰 성과로 평가한 뒤 “국가 안보에는 이념 문제나 진영 논리가 아닌 국가가 한 방향으로 의견을 결집하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호 회장, 미국·캐나다 방문... 활발한 민간외교활동 펼쳐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의 밤 행사 주관, 미 알래스카분회 창설... 향군위상 제고

‘추모의 벽’ 건립성금 전달, “헌신 보답할 것”

김진호 회장이 7월27일 미국 정부가 주관하는 7·27 정전협정 기념식에 참석하고 이날 저녁 워싱턴 웨라톤 펜타곤시티 호텔에서 커닝 햄 한국전참전전우회 회장, 존 킬렐리(전, 한미연합사령관)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 이사장 등 내빈과 미국 한국전 참전용사 300명을 초청하여 위로연을 열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민간단체가 주관하여 보은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지난 9월부터 10개월간 모금한 ‘추모의 벽’ 건립 성금 6억 3천만원을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에(KWVMF)에 전달해 보은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김진호 회장은 “한국전 당시 한국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미국의 아들 딸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참전하여 큰 희생을 치르며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며, 향군이 여러분들의 고귀한 희생에 보답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 1천만 향군은 한·미 동맹강화를 위해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뜻이 계승되고 전쟁영웅들과 그 후손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추모의 벽 건립 성금 모으기 범국민운동’을 앞장서 추진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김진호 회장이 8분간 영어 연설을 하는 동안 4차례의 박수가 터져 나왔으며 참석자들은 이중 2차례 기립박수를 보내며 공감과 감동의 뜻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윤제 주미대사가 낭독한 메시지를 통해 “비무장지대에서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과 함께 공동 유해발굴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화살고지에 이어 DMZ 전역으로 확대하여 한반도에 잠들어 계신 참전용사들을 가족, 전우, 조국의 품으로 돌려 보내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2022년까지 ‘추모의 벽’을 건립하는 일도 차질 없이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커닝 햄 한국전참전전우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66년 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우리 참전용사들 초청하여 과분한 보은의 자리를 마련해 준데 대해 감사한다”며 미국이 독립이후 세계 각지에서 많은 전쟁과 전투를 치루었지만 “고맙고 감사하며 보은을 하는 나라는 코리아 밖에 없다.”며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

킬렐리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 이사장은 김진호 회장과 의 군



김진호 회장이 향군이 주관한 한국전참전용사 보은의 밤 행사에서 킬렐리 이사장에게 10개월간 모금한 ‘추모의 벽’ 건립성금 53만불(한화 6억 3천만원)을 전달했다.

근무인연을 소개하며 “향군이 앞장서서 ‘추모의 벽’ 건립 성금을 모으고 캠페인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알려 한국정부가 적극 나서도록 해 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2022년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

킬렐리 이사장은 이날 김진호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김진호 회장은 웨버 전 이사장과 존 킬렐리 현 이사장에게 향군 대회장 수여했다.

한편 김진호 회장은 이에 앞서 20일에는 덴 설리번 미 상원의원과

함께 알래스카 향군분회 창설식을 주관하고 향군회원과 교민들을 대상으로 안보강연을 했다. 창설식에 앞서 김진호 회장은 알래스카가 지역구인 덴 설리번 미 상원의원과 안보 대담을 통해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미 동맹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23일에는 뉴욕 유엔본부 평화유지활동국(UN DPKO)을 찾아 UN DPKO 사무차장보인 로이테 중장을 만나 DPKO 활동을 치하하고 PKO 사무국의 세계군문화엑스포 참여를 요청했다.

로이테 장군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2021년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평화유지장관급 회의 개최에 대한 향군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26일에는 앤디 킴 하원의원을 만나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참전용사촌(AFRH)을 방문해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문했다. 또 월터 샤프 주한미군 전우회장 등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31일에는 캐나다 향군지회를 방문하여 회원들을 격려하고 안보강연을 했다. <관련기사 2면>

향군위상 제고와 한미동맹 강화 위한 여정

여러분들의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향군주관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행사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진호 회장.



틸렐리 추모의 벽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고 있는 김진호 회장.



미 정부가 주관한 7.27 정전협정 66주년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진호 회장



7.27 정전협정 기념행사에 참석한 미 참전용사와 기념촬영



유엔을 방문, DPKO 로이테 사무차장보와 계통세계군문화 엑스포 지원과 관련 환담 하고있는 김진호 회장



미 재향군인회 (AL) 워싱턴사무소 방문.



설리반 상원의원과 환담.



미 전략 요충지인 알래스카 향군 분회 창설.



산타마리아 향군 분회 창설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의 밤 연설문 전문

자유수호 위한 큰 희생, “영원히 기억할 것”

참전용사 헌신에 감사 ... ‘추모의 벽’ 기금 모금



폴 커닝햄 한국전참전용사 회장님, 존 틸렐리 한국전참전용사 추모재단 이사장님, 조윤제 대사님, 그리고 6·25참전용사 및 가족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신사 숙녀 여러분!

먼저 대한민국 1천만 재향군인회원을 대신하여 69년 전인 1950년 한국전쟁 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여기계신 참전용사 및 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50년 북한군의 기습남침 당시 10살 이었던 저는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을 탈환하는 미군탱크를 향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열렬히 환영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날 제가 환영했던 미군들은 한국전사에 길이 빛나는 작전인 ‘폭잡힐 전투’에서 돌격 소대장으로 용맹을 떨쳤던 펜스 부통령의 부친 ‘에드워드 펜스’ 소위를 비롯하여 중공군을 물리쳤던 장진호 전투 등에 참전했던 여러분들 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1968년 육군대위로 월남전에서 미군과 함께 싸웠고, 군 복무를 마칠 때까지 미군과 함께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해 온 직업군인 출신으로 강력한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탄생은 불가능했을 몸소 지켜본 사람입니다.

지난 2017년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장병은 지난 70년간 함께 싸웠고, 함께 희생했고, 함께 승리했다”고 했고, 지난 달 관문점 방문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 보다 굳건하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1천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한·미동맹강화를 위해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뜻이 계승되고, 전쟁영웅들과 그 가족들의 명예를 높이는 ‘추모의 벽 사업 기금모금 범국민운동’을 앞장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현충일 추념사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한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2022년까지 ‘추모의 벽’을 건립하여 참전용사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를 표할 것입니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 추모의 벽 재단 이사장이신 틸렐리 장군은 제가 합참의장 당시 연합사령관으로 긴밀한 작전공조를 했던 존경하는 전우로서, 틸렐리 장군에 의해 ‘추모의 벽’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참전용사 여러분! 한국국민들은 한국전 당시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는 미국의 아들, 딸들이 국가의 부름에 따라 참전하여 큰 희생을 치루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며,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 보답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참전용사분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참전용사 여러분과 가족, 그리고 미합중국에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27일

향군 성명

국론분열 획책, 향단연·광복회 규탄

김진호 회장 광복절 행사 불가, 어불성설 ... 공개토론으로 시시비비 가리자

향군은 7월10일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향단연)과 광복회를 향해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향단연은 7월3일 향군회관 앞에서 1천만 향군을 해체하고 김진호 향군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나아가 8일에는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에 공문을 보내 김진호 향군회장의 광복절 행사 참석 불가를 요청했다.

이에 향군은 이날 '향단연과 광복회는 더 이상 국론분열을 획책하지 마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김원웅 광복회장이 대한민국 탄생과 국군의 정체성을 통째로 뒤흔들며 국론분열을 획책하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신성한 광복회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북한의 군사위협이 상존해 있는 안보상황에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를 이분화 시기면서 국론분열을 조장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신성한 독립유공자 후손과 독립선열선양을 명분으로 향군과 국가유공자인 김진호 회장을 폄하하여 매도하는 것은 향군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으로 1000만 향군은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생을 전장터에서 대한민국 체제수호를 위해 몸바친 김진호 회장이 국가 경축일행사에 참가하면 안된다"는 향단연의 주장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창군원로들을 친일의 앞잡이로 몰아 국군의 뿌리를 흔드는 꾀변을 늘어놓고 있는 김원웅 역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5천만 국민 앞에 공개토론을 통해 결판을 내자"고 밝혔다.

안보단신

미, "한·일과 핵무기 공유협정 체결 고려해야"

미국이 한국, 일본과 비전략 핵무기를 공유하는 이른바 '핵무기 공유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의소리(VOA)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은 최근 발표한 '21세기 핵 억제력: 2018 핵 태세 검토보고서'의 작전 운용화'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 핵 위협에 대응해 일본과 한국 등 특별히 선정된 아시아 파트너국과 비전략적 핵 능력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급변사태 발발시, 이들 아시아 동맹국들과 비전략적 핵 능력을 미국의 관리 아래 공유하는 잠재적이고, 논쟁적인 새 개념을 강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독일, 터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5개 나라와 핵무기 공유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 협정에 따라 이

들 5개 나라는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에서 탈퇴해, 자국에 배치돼 있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주한·주일 미군 철수, 미국에 부정적 영향

데이비드 노퀴스트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7월24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주한·주일 미군 철수는 전략적 측면에서 미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노퀴스트 지명자는 "일본과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해야 할 경우 미국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묻는 질문에 "나쁜 것일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또 분담비 관련 합의를 못하고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을 철수해야 할 경우, 수십 년 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국의 동맹 분열을 시도해온 러시아와 중국, 북한에게 주한·주일 미군 철수는 훌륭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질문에, 노퀴스트 지명자는 "그럴 것"이라

고 말했다.

미북 실무회담 연합훈련 종료 이후 가능

에반스 리버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등 미국 외교안보전문가들은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미북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북한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의미는 그들이 다음달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을 문제삼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톱 다운' 방식을 선호했던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실무회담 개최를 '양보'로 계산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청구서로 내밀면서, 탄도미사일과 핵 실험 재개 시사를 위협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북 협상이 올해 말에나 재개될 것"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 초점

한미동맹 평화의 공원,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건립

7월19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 타운십 소재 '메모리얼 그로브 파크(Memorial Grove Park)'에서 6·25전쟁 미국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미동맹 평화의 공원' 기공식이 열렸다.

이번 사업은 '한국전쟁기념 한미동맹 평화의공원 건립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몽고메리 타운십으로부터 109,265㎡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한국 정부에서 지원한 3억 원과 주정부와 한인동포 등의 성금 7억원 등 총10억원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공원 건립은 지난 2004년부터 한인사회와 몽고메리 타운십에서 6·25전쟁에 대한 미래세대 교육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원은 건립 후 몽고메리 타운십 시립공원으로 관리·운영된다.

청소년 평화통일 체험활동, 프로그램 경진대회공모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우수한 청소년 평화통일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하여 청소년의 평화통일 공간대 확산 및 평화통일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 청소년 평화통일 체험활동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9월 27일까지며 개인, 단체부문 참가가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와 프로그램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서약서 등이며,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접수(unifuture@korea.kr)하면 된다.

유엔군 참전의 날 맞아, 평화통일기원 결의대회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7월26일부터 27일까지 '제17회 휴전선 155마일 횡단행사 및 평화통일기원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6·25전쟁의 의미와 자유·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국내외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2003년부터 시작됐다.

행사는 7월26일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출정식을 가진 후 인제 백골병단 전적비 참배와 육군 7사단 신병교육대 병영행사, 27일에는 화천 총열탑에서 거행된 참배행사 후 철원 평화문화광장에서 열린 중부전선 전사자 추모식 그리고 파주 임진각 망배단에서의 평화통일기원 결의대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5천만 국민 누구나! 재향군인회상조회

재향군인회상조회가 '국가대표급' 감동으로 동행하겠습니다.

상조상품	크루즈 여행상품	향군전용모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대표336 · 마음튼튼450 · 국민감동520 *월1만원대로 부담없이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아노선 5박 7일(2인) · 서부지중해노선 8박 10일(1인) *풀패키지, 발코니객실, 전문인솔자 동행, 전노선 500만원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야외시설 · 수목장지 · 실내봉안당(계획)



홍익대시
#이이이이이

홍익대시
#이이이이이

고객센터
1577-0720

여행상담
02-2218-7152

모역상담
02-2218-7140

- 상조 상품가입으로 크루즈 여행서비스까지 회원특전으로 제공합니다.
- 장례서비스에서부터 장지제공까지 원스톱서비스로 모십니다.
-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고객감동을 실현합니다.
- 무료 병역이행상담, 회원복지물 운영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평택 험프리스 기지 한미동맹 상징조형물 제막

한미장병 협력, 역경 극복 모습 형상화 ... 우호 상징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널리 알리고 주한 미군이 용산시대를 마감하고 평택으로 이전한 것을 기념하는 한미동맹 상징조형물 제막식이 7월10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비롯하여 박한기 합참의장,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서 거행됐다.

‘함께하는 내일,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한미 장병이 협력하여 역경을 극복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상징물은 주탑과 원

형으로 펼쳐진 역사의 벽, 바다에 한미동맹이 함께 이겨낸 6.25전쟁사를 표현한 역사의 시계와 한반도 조형, 원 바깥쪽에 육·해·공군 및 해병대 상징물까지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미동맹 상징조형물은 한미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육군성에 기부한 것이며 주한미군의 중심부인 캠프 험프리스 기지 내에 설치되어 1953년부터 굳건히 이어져 온 한미동맹을 상징하고 있다.



해군1함대, 물놀이 응급상황 대처 교육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군1함대 장병들이 7월8일 부대 인근 동해초등학교를 방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상황 대처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에게 물놀이 중 심정지 같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응급 처치법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건물 화재 발생 시 초동조치 및 대피법 교육을 통해 생활안전에 관한 기초 지식을 익히고 안전습관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일일 강사로 나선 해군 하사관들은 평소 해군 장병들의 훈련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해상훈련대 소속 관찰관들로 대한심폐소생술협회가 발급한 기본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보유해 교육의 전문성을 더욱 높였다.

공군1전비, 피서철 앞두고 환경정화 동호해수욕장 찾아 폐기물 수거 등 힘 보태

공군1전투비행단(1전비)은 7월5일 부대 인근 전북 고창군 동호해수욕장에서 민·관·군이 함께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동호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정화 활동에는 1전비 장병 50여 명을 비롯해 고창군 해리면사무소, 동호·광승 어촌계, 민간해양구조대 등이 참여했다.

장병들은 해변에 버려진 각종 폐기물 등 해양 쓰레기를 줍고 해변을 따라 환경미화 작업을 펼치는 등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관광객맞이에 분주한 지역 주민들에게 큰 힘을 보탤 예정이다.

1전비는 이번 동호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동호해수욕장 파견대’를 운영해 항공기 소음에 대한 현지 민원을 신속하게 접수·조치할 예정이며 내달 말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도 한 번 더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할 예정이다.

육군203특공여단, 피보다 귀한 나눔

헌혈증 230장 기증...지역 불우시설도 방문, 도움 손길



육군203특공여단 봉사동아리 장병들이 지난 6월26일 그동안 모아온 헌혈증 230장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증했다. 이는 약 9만2000ml의 혈액을 기부한 것과 같은 것으로 장병들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뜻 깊은 나눔 활동을 고민하던 중 혈액이 부족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헌혈증을 모아 기부하게 됐다.

여단 봉사동아리는 매주 2회 2~4시간씩 지역 보육원, 양로원, 헌혈의 집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회원 장병 27명 전원은 개인 봉사시간 100시간 이상을 넘겼다.

여단은 “장병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학습, 봉사, 독서, 인성교육, 종교생활 등을 아우르는 ‘장병 자기계발 프로젝트’를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대2사단, 말라리아 방역에 ‘구슬땀’

다발지역 습지대 집중 방역, 예방교육 강화

해병대2사단 의무근무대가 7월17일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일대에서 김포시 보건소, 지역 주민과 함께 민·관·군 합동 방역 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역은 말라리아 퇴치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으며 말라리아 환자 다발지역으로 판단된 하성면 습지대에 방역 특장차량과 휴대용 연막기 등을 이용해 친환경 유충 살충제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부대는 이번 방역 활동에 이어 김포시 보건소와 함께 지역 주민과 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감염병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2사단은 “장병과 주민 모두가 걱정 없는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말라리아를 완전히 퇴치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은 해병대2사단의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밝혔다.

국방단신

제18회 병영문학상 작품공모

국방부는 장병들의 문예창작 능력개발과 정서함양을 위해「제18회 병영문학상」작품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부문은 시 또는 시조(개인당 3편 이상), 수필(개인당 2편 이상, 편당 A4용지 4쪽 내외), 단편소설(개인당 1편 이상, 편당 A4용지 15쪽 내외)이며, 주제나 형식은 제한이 없다.

전 장병(장교·부사관·병)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기간은 오는 7월29일부터 9월6일까지이며 결과는 10월17일 국방부 인터넷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부문별 최우수상 1명에게는 장관 상장과 기념패, 상금 500만원이 주어지며 한국문인협회 임회 자격이 부여된다. 부문별 우수상 2명에게는 장관 상장과 기념패, 상금 300만원, 한국문인협회 임회 자격이, 부문별 가작 부문별 3명에게는 장관 상장과 기념패, 상금 100만원이, 부문별 응모인원 4~5% 내외의 입선자에게는 입상 확인서와 기념패가 수여된다.

자세한 응모방법 및 기타 관련 사항은 국방부 정신전력문화정책과(02-748-6269, 900-6269)로 문의하면 된다.

육군, 지역 드론교육센터 개소

육군은 드론전사 양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올해 전반기에 7개의 지역 드론교육센터를 개소했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이달 1일부터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간다.

2017년 정보학교 드론교육센터, 2018년 계룡대 드론교육센터를 개소한 육군은 2020년까지 군단 및 지역방위사단, 병과 학교에 지역 드론교육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7개소, 내년에 9개소 등 총 18개소의 센터가 모두 구축되면 육군은 연간 1,000여 명의 드론전사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정보학교 드론교육센터는 지역 드론교육센터의 교관을 양성하고, 센터 운용을 총괄 지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 야전에서 적용 가능한 전투수행 기능별 드론 고등기술을 개발해 지역 드론교육센터에서 부대 임무에 특화된 교육이 가능하게 지원한다.

유엔 참전용사 후손, 평화캠프 참여

한국전 참전 인연, 미래로 계승 발전 ... 우호 증진



15개국 유엔(UN)참전국 후손들이 6월30일부터 7월6일까지 한국을 방문, KB증권연수원에서 열린 유엔참전용사 후손 평화캠프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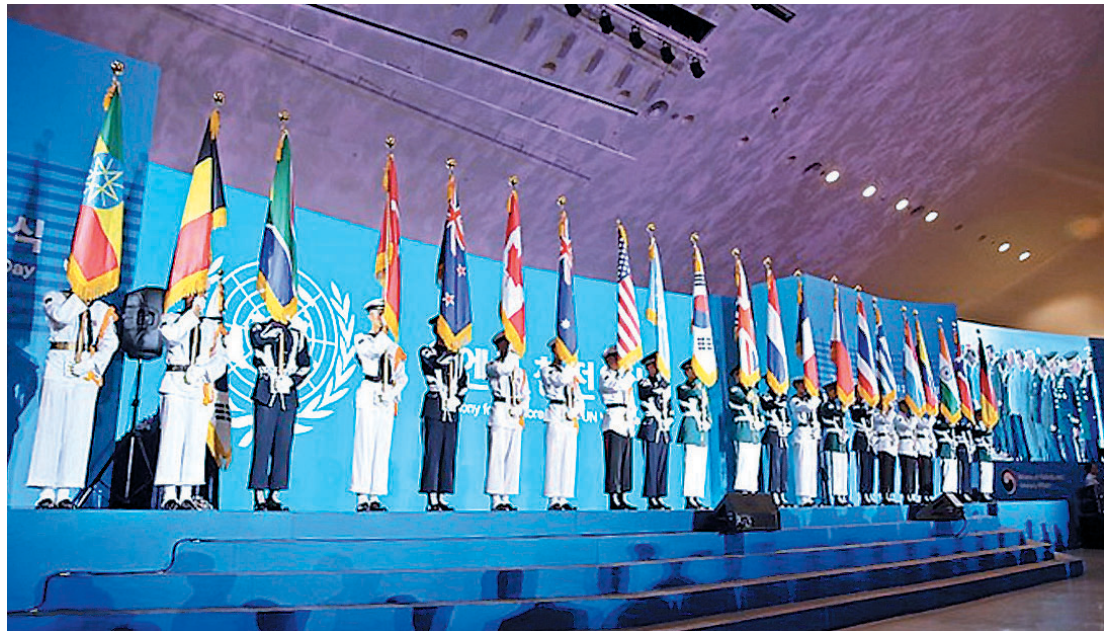
미국, 영국 등 15개 참전국에서 참전용사 후손 70명과 국내 대학생 44명 등 캠프 참가자들은 현충원 참배와 발대식을 시작으로 전쟁기념관과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고 한국 대학생들과 함께 서울

도심 곳곳을 누비며 한류 및 한국문화 체험을 통해 참전용사인 할아버지가 지킨 대한민국의 전후 발전상을 보며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평화캠프는 6·25전쟁을 계기로 유엔참전국과의 각별한 인연을 참전용사 후손 등 미래 세대로 계승·발전시켜 참전국과의 우호관계 발전을 위해 올해로 11회째 진행됐다.

‘함께 지킨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유엔군 참전의 날 맞아 참전용사 및 가족 방한



유엔군 참전의 날(7월 27일)을 맞아 미국, 호주 등 16개국 유엔군 참전용사와 그 가족 등 107명이 7월23일부터 28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방한 참전용사 중에는 6·25전쟁 당시 혁혁한 공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을지무공훈장을 받게 되는 호주 참전용사 고 찰스 허큘리스 그린 중령의 손자 알렉산더 찰스 노먼과 필립 에릭 노먼 씨, 6·25전쟁 때 연락장교로 파견된 그리스의 콘스탄티노스 파로스 씨, 양구군 사태리의 931고지에 풍장된 프랑스 참전용사 모리스 나바르의 아들 필리페 모리스 나바르 씨, 전폭기 조종사로 혁혁한 공을 세운 남아프리카공화국 참전용사 고 베셀 야코버스 요하네스 바데노스의 딸 블라 일레인 바버 씨와 의료지원으로 인도주의를 실천한 스웨덴 참전용사가 포함됐다.

‘함께 지킨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7월27일 서울 중구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6·25전쟁 유엔 참전의 날 기념식은 향군 부회장단을 비롯해 국내외 6·25참전용사,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장애인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6·25전쟁 당시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대한민국 청년, 소년, 소녀들이 집과 공장을 다시 지으며 국가를 재건했다”며 “그 가운데 한 소년은 훗날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인류의 고난을 덜어드리는 일에 봉사했고, 흥남부두 피난선을 타고 남쪽에 내려오신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소년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대한민국의 꿈은 바로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유엔의 꿈이다. 한국인의 꿈이 바로 유엔군 참전용사 여러분의 꿈”이라며 “그 꿈이 이뤄지도록 유엔군 참전용사와 가족 여러분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호주 출신의 찰스 허큘리스 그린 중령에게 대한민국 을지무공훈장이 추서됐다. 그린 중령은 호주 제3연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38선 돌파 후 20여일 만에 의주까지 진격하는 등 전공을 세웠다.

방한한 참전용사와 가족들은 7월 24일 관문점을 방문해 남북 분단의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25일에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추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참석 후 출국했다.

유해발굴감식단, 참전용사 증언 청취

증언 중심 발굴 기초자료 수집 ... 국민공감대 형성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유해 소재에 대한 참전용사들의 제보를 받고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7월23일부터 25일까지 전남 동부지역(여수·광양·순천)에서 6·25전쟁 참전용사 증언 청취회를 실시했다.

이번 청취회는 사전 조사활동을 통해 신뢰성이 검증된 전남 동부지역 120여 명의 참전용사 증언에 중점을 두고, 참전 당시 의·식·주 관련 확인표(check-list)를 활용한 기초자료 수집과 병행해 진행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유가족관리처 주경배 처장은 “6·25전쟁 전사자 유해소재 제보 및 유가족 DNA 시료채

취 참여는 유해발굴 사업의 핵심 요소로 사업설명회 및 참전용사 증언 청취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유해발굴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해발굴감식단은 증언 청취회와 더불어 유해발굴 사진, 유품 전시를 통해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국민들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유해발굴감식단은 지금까지 6·25전쟁 참전용사 및 지역주민에게 3,000여 건의 유해소재를 제보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1,400위에 달하는 유해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대군인·보훈가족 채용 박람회 ... 맞춤형 상담·컨설팅 진행

60개 기업과 구직 희망자 5,000여 명 참여, 창업 프로그램도 운영

제대군인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2019 국가보훈 일자리 박람회가 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회, 국방부, 병무청의 후원과 관계기관 협업으로 7월 24일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렸다.

박람회장은 채용/창업관(63개), 컨설팅/안내관(4개), 정책홍보관(5개), 부대행사관(5개) 총 77개 부스가 운영되었으며, 구직자와 기업 간의 1:1 현장면접과 컨설팅,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현장 채용관에는 45개 기업이 참가하여 100여 명의 현장채용을 목표로 채용 면접 등이 이루어졌으며 취업 컨설팅관에서는 제대군인 및 보훈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과 취업맞춤특기병 취업컨설팅 프로그램 등이 운영됐다.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창업컨



설팅 프로그램도 현장에서 운영됐으며 기술창업을 비롯한 외식프랜차이즈사업, 편의점, 푸드트럭, 요양시설창업과 귀농귀촌관련 등 다양한 창업 관련 아이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특별관도 꾸려졌다.

◆위기 극복의 첨병 / 충남 홍성군 향군

회관 노후화로 줄어드는 임대수익, 매각추진으로 극복 지역행사 주관, 회 위상 제고 ... 재정위기도 일부 해소



홍성군 향군회관



김좌진장군배 철인3종경기를 주관하고 있는 홍성군 향군

지난 2005년 홍성군 향군(회장 이경열)은 구 회관을 이전하며 인근 요충지에 지금의 회관을 건축했다. 회관의 대부분을 예식장으로 꾸며 임대를 했다. 당시에는 군내 최고의 시설을 갖춘 예식 시설로 군민들의 호평을 얻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회 운영을 위한 재정은 넉넉한 편이었고 회관건축으로 발생했던 금융비용 처리도 문제가 없었다. 예산, 서산, 태안 등 인근 시군구회에서 홍성향군의 모범사례를 부러워하며 벤치마킹할 정도로 성공적인 회관건축의 사례로 평가 받았다.

건물 노후와 줄어드는 임대수입 회관 매각 추진

그러나 2019년 현재 홍성군 향군은 회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건축한 지 15년이 지나면서 건물이 노후화 되고 유행과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인테리어로 군민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했다. 시설 좋은 예식장으로 평가 받았던 그간의 메리트를 상실해 갔다. 게다가 인근에 최신 시설

을 갖춘 대규모의 예식장이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예식장 임대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대규모의 리모델링이 답이지만 회 재정 상 이것도 여의치 않았다. 홍성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기초적인 보수를 해왔지만 대대적인 리모델링 필요한 시설인 예식장을 변모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렇다고 예식장 시설을 일반 사무실로 개조해 임대수익을 확보하는 것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줄어드는 임대수입으로 회 운영은 어려워졌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홍성군 향군도 노력도 이어졌다.

먼저 지출에 비해 부족한 운영 자금은 이사회 후원으로 채웠다. 의기에 처한 조직을 살리자는 데 모두가 한마음이 됐다.

그리고 군청과 협조하여 지역에 진행되는 각종 행사를 주관하면서 기부금도 확보했다. 김좌진장군, 한용운 선사, 최영장군, 성삼문 선생 등 총절로 대표되는 인물을 출한 홍성에는 이를 기리는

행사들이 많이 열린다. 이중 홍성군 향군은 백야 김좌진 장군 배 전국 철인 3종 경기대회를 10년째 주관해 오고 있다. 행사진행 및 봉사, 주변 환경 정화까지 회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진행해 대회의 성공에 밑거름이 되어 왔다.

하지만 홍성군 향군은 이런 노력들도 궁극의 해결책은 못 된다는 판단이다.

지역축제 주관 회 위상 제고 이사진 합심, 회 운영자금 지원

오랜 고민 끝에 홍성군 향군은 회관 매각을 결정했고 인근 신도시나 관공서 밀집지역의 일반 오피스 빌딩으로 이전을 추진 중에 있다.

15년 전 낡은 회관을 매각하고 현 회관을 신축, 모두의 부러움을 샀던 홍성군 향군은 이제 회관 매각과 오피스빌딩 이전을 추진하며 제2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과거의 성공경험을 살려 순조로운 회관이전을 마무리한 뒤 다시금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지역의 중추단체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

서울 관악구 향군회관 리모델링 공사 완료 35년 노후 회관 정비, 지역발전 선도 다짐

서울 관악구 향군(회장 박봉주)이 7월5일 회관 리모델링 준공식을 갖고 안보활동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단체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관악구 향군은 구청 보조금 6천만원, 자부담 1억 2천 5백만원 등 1억 8천 5백만원을 확보, 지난 5월1일부터 6월 28일까지 약 두 달 동안 건물 외벽벽체 및 창호교체 공사,

3층 사무실 정비, 화장실 공사, 건물 내부도장 및 벽체 보강, 옥상 방수공사, 회관 간판 및 국기계양대 정비공사 등을 실시했다.

관악구 향군은 1984년 건립, 35년이 지난 향군회관이 건물 누수 및 외벽 균열 등으로 안전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는 건물로 전락함에 따라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추진해 왔다.



칠곡 향군-미6병기대대, 자고산 전몰장병 추모

한·미 장병들의 위대한 자유수호 의지 잊지 말아야...

자고산 303고지 한·미 전몰장병과 미군포로 학살희생자 42위 한·미합동 추모행사가 6월28일 주한미군 캠프 캐롤 장병, 향군회원, 지역 보훈 안보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칠곡군 향군과 미6병기대대 주관으로 왜관읍 석전중학교에서 열 수됐다.

이날 이길수 칠곡군 재향군인회장은 추념사를 통해 한국전쟁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한미장병들의 위대한 희생정신과 자유수호 의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모식은 미군과 함께 했던 한국전쟁의 아픈 역사를 상기하고 한미동맹 증진을 위해 캠프 캐롤 6병기대대가 지난 2003년 8월 주한미군의 「좋은 이웃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고산 정



상에 작은 표석을 세우고 지역 주민을 초청 추모행사를 시작했고, 이에 칠곡 향군을 비롯한 지역안보단체와 뜻을 함께하면서 지역의 주요행사 자리잡았다. 2012년 8월에는 학살현장에서 한·미 합동 한국전통식 위령제

까지 거행되어 세간의 주목을 이끌기도 했다.

현재 학살현장에는 지난 2017년 경상북도과 칠곡군 그리고 대구지방보훈청의 지원으로 웅장한 추모탑과 함께 한미우정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광주 전남 향군, 호국용사 위훈 기려

평화통일 기원 응변·백일장 대회, 안보의식 함양

광주 전남 향군(회장 나종수)은 7월18일 6·25전쟁 69주년을 맞아 한국마사회 광주지사 문화공감홀 및 광주공원 현충탑 일대에서 평화통일기원 응변·백일장 대회 및 안보강연회를 개최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남북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광주 전남 교육청과 24개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의 협조로 우수한 학생들

이 다수 참가해 성황을 이뤘으며 국가보훈처장상을 비롯하여 시·도지사와 교육감 등 기관 단체장 및 대학 총장상 등이 45명에게 시상되어 행사의 권위를 더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위대한 꿈'을 주제로 한 안보강연도 진행되어 호국용사의 희생과 위훈을 기리는 한편 내일의 안보주역인 초중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나라사랑 정신을 심어 주는 계기가 됐다.



서울 성북구 향군, 터키 6·25참전 용사 위훈 기려

터키 6·25전쟁 참전 69주년 행사 참석 ... "숭고한 희생 잊지 않을 것"



서울 성북구 향군(회장 박상찬)이 지난 5월23일~26일까지 터키 이스탄불과 앙카라를 방문해 터키 6·25참전 용사들을 위문했다.

이번 방문은 성북구청이 지난 2012년 터키 이스탄불시 베이올루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그해 12월과 지난해 6월 진행된 터키 6·25참전용사 초청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성북구 향군은 방문기간 이스탄불시 '하이드르 알리 엘드즈' 베이올루구 구청장과 '슈크르 탄도안' 터키 참전용사회 중앙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나누었으며 터키 6·25한국전쟁 참전 69주년 기념 중앙행사에도 참석, 현화 참배했다.

조부가 터키 6·25 참전용사인 '하이드르 알리 엘드즈' 베이올루구 구청장은 터키 6·25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위해 위로행사를 베풀어 준 이념으로 성북구청장과 성북구 향군에 감사의 메시지도 전했다.

박상찬 성북구 향군회장은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터키 6·25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서부 향군, 가평교 지원 미 40사단에 감사패
미 서부 향군(회장 김재권)은 5월29일 제40 보병사단을 방문, 이임하는 마크 말랑카(왼쪽에서 4번째) 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40사단은 한국전쟁 중 지금의 가평교교를 직접 지어주고 60년이 넘도록 한미 혈맹을 이어오고 있다.



영국 향군, 6·25참전용사 보은행사
영국 향군(회장 장희관)은 6월29일 Reading 시에 있는 Reading University Student Union building에서 참전용사와 그 가족 교민 등 300여명을 초청하여 6·25기념 및 참전용사 보은행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청주시 향군, 참전유공자 위로연 ... 희생과 노고 위로



충북 청주시 향군은 7월18일 청주 M컨벤션센터에서 6·25참전 국가유공자와 관계 기관, 보훈 및 안보단체 회원, 향군 회원 등 4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참전 국가유공자에 대한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위로연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주교육지원청 조은경 장학사와 충북남부보훈지청 임주영 보훈팀장에게 청주시장 표창이, 청주 용호사 자천강 주지스님에게 재향군인회 김진호 회장 감사패가 수여됐다.



충주시 향군 여성회, 전몰군경미망인 위로행사
충주시 향군 여성회(회장 유인순)는 7월15일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인고의 세월을 지내온 전몰군경의 배우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전몰군경미망인 위로행사를 개최했다.

각급회 소식

이웃에 봉사하고 안보 계도에 팔 걷어 ... 향군 각급회 활동

(6월21일 ~ 7월20일)

부산시 향군



사하구회 : 6월25일 보훈회관에서 6·25 참전유공자 유족과 국가유공자를 초청해 제 69주년 6·25참전 위로연을 가져.



영도구회 : 7월20 안보전적지 순례행사의 일환으로 통영 해병대 상륙작전 전적비 참배.

대구시 향군



대구시회 : 7월16일 대구여상 학생 40여 명과 함께 국립 영천호국원, 영천전후호국 기념관 및 육군3사관학교 견학 등 후계세대 안보교육 실시.



수성구회 : 7월5일 우대가맹점 이강우 보청기의 후원으로 저소득 향군회원에 대한 무료보청기 지원행사 실시. 6월29일 이순신 장군 전적지인 당항포를 둘러보는 안보현장 답사 실시. 6월25일 자매결연학교인 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안보공감 강연회 가져.



동구회 : 6월 23일 달서구 코오롱 야외음 악당에서 개최된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음 악회 참석. 해안동회는 6월28일 6·25참전 국가유공자에게 전해달라며 라면 30박스를 해안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

달성군회 : 6월22일, 23일 강원도 고성 및 인제지역 일대 안보현장 견학 및 안보 연수회 개최.

인천시 향군



인천시회 : 6월28일 연평해전 영웅 운영 하 소령 묘고 인천 송도고에서 거행된 17주기 추모식 참석. 7월12일 향군회관에서 군·구회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성과 분석회의 실시.



남동구회 : 동회장협의회는 안보의식배 양 및 화합단결을 위해 '세계 평화의 종 공원' 에서 전후세대 전적지 순례 활동. 임원 및 여성회원들은 공주 공산성과 무령왕릉 일대 역사 유적지 견학. 6월25일 6.25참전유사 및 국가유공자들을 초청하여 식사 나눔 행사.



계양구회 : 6월26일 카리스 호텔에서 보훈가족 위로행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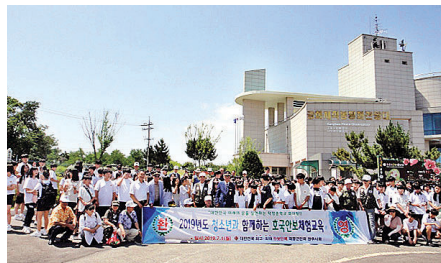
동구회 : 7월13일 양평 지평리 전투 기념관을 견학하고 안보의식 고취.

부평구회 : 7월 6일 천안 독립기념관과 유관순 열사 기념관 및 생가를 둘러보는 역사탐방행사 실시.

강화군회 :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 해군기지와 제주도 충혼묘지 견학 등 안보 수련회 가져.

연수구회 : 7월13일 송도 예송중학교 학생과 아버들이 참가한 가운데 강화 평화전망대, 전쟁기념관 등을 둘러보는 아빠와 함께하는 안보견학 행사 실시.

경기도 향군



양주시회 : 7월1일 덕정중학교 학생들을 초청하여 평화전망대 등 강화도 안보현장 견학 행사 및 안보 교육 실시. 6월23일 포천 일대에서 향군 자문위원 단합행사 가져.



수원시회 : 6월27일 대전 국립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 등 호국안보 답사 행사 가져. 연무동회는 6월28일 수원천 발원지 인근에서 '수원천 가꾸기 하계 봉사 발대식', 야간 방법활동 출정식' 가져. 여성회는 7월5일 수원보훈원 방문, 봉사활동.

남양주시회 : 7월5일, 광동중학교 1학년 210명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안보교육 실시, 청소년 안보의식 고취. 7월9일,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향군임원단 간담회 개최, 향군 현안 논의.



과천시회 : 7월17일 관악산 등산로 입구 주유 지역의 환경정화 활동 실시. 청년단은 7월16일 관악산에서 간담회 개최.

이천시회 : 7월15일 읍면동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양평 석산리에서 하계 연수회 실시.

강원도 향군



양구군회 : 7월18일 대우산 6·25 전사자 유해발굴작업 현장을 방문, 장병들을 격려

하고 위문품을 전달.

충청북도 향군



충북도회 : 6월28일 가화한정식에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한 위로연을 갖고 송고한 희생정신과 노고에 감사.

청주시회 : 7월5일 영빈관에서 안보 및 보훈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현안 논의.

대전 충남 향군



금산군회 : 여성회는 6월26일 보훈가족 및 소외 독거노인 가정 30가구를 방문, 반찬과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 사랑의 나눔 봉사 활동.



서천군회 : 7월5일 향군회관에서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 교육.

전라북도 향군

전주시회 : 6월29일, 30일 6·25 전쟁 참전 국가유공자 전주시회원 100여명의 자택을 직접 찾아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선풍기에 팬포머를 설치하는 봉사활동 펼쳐. 7월1일 중화산동 소재 보배원에서 자매결연부대인 전주대대장과 완산 덕진지역대장 등을 초청하여 간담회 실시.

순창군회 : 7월2일 순창군 쌍치면 전암리 일대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 활동 중인 국방부 유해발굴단을 방문, 격려.

부안군회 : 6월26일 김용택 안보 강사를 초빙하여 변산 서중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더 크고 발전된 놀라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안보 강연회.

고창군회 : 7월11일 고창 북고등학교 학

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현오 향군 안보 교수를 초청, '독립운동 100주년, 통일로 이어간다' 를 주제로 안보교육 실시.



익산시회 : 6월25일 호국보훈의 달 위문 품으로 송성일 해병 대위로부터 기증받은 생필품(라면, 화장지, 커피등)을 6·25 참전 용사에게 전달. 안보단체협의회는 7월9, 10 일 이순신장군의 최대전승지 한산도와 거제 포로수용소, 장사상륙작전 기념 공원 등을 둘러보는 안보전적지 견학행사 실시.



군산시회 : 7월13일 월명공원 해병대 전 적비에서 거행된 해병대 최조전투 전승기념 및 추모제 참석. 7월14일 군산중학교 교정 (충경원)에서 거행된 제69주기 군산 중·고 학도병 전사자 추모제 참석.

무주군회 : 7월10일 제7733부대 4대대에 서 장병 및 향군회원들을 대상으로 이태준 강사를 초청,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주제로 안보교육 실시.

완주군회 : 7월18일 안보현장견학의 일환으로 서해 방위를 담당하는 평택 해군2함 대사령부를 방문.

광주 전남 향군



광주 전남도회 : 6월27일 군 구 사무국장 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반기 업무성과 분석 회의 실시. 여성회는 7월10일 광주송정역에서 2019년 FINA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쿠바선수단 환영행사.

광주 동구회 : 여성회는 6월23일 광주동구노인복지관 찾아 무료급식 봉사.

광주 남구회 : 호국정신 선양을 위한 보훈가족 한마음 대회를 갖고 국가유공자 가족 위로. 여성회는 7월1일 사랑의 밤차 봉사 활동.

광주 북구회 : 노향자 여성회장은 7월3 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된 '제12회 북구 구민상 시상식'에서 65세의 고령임에도 치매와 피부암을 앓고 있는 친정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고 4대가 함께 살며 화목한 가족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북구 구민상 수상.

광주 광산구회 : 6월25일 광주공원 추모비를 참배하고 호국영령 위훈 기려.



함평군회 : 6월24일 거제도 포로수용소, 통영 장사도 일대 안보현장 견학. 7월1일 제21회 함평나비대추제에서 판매부스를 운영해 얻은 수익금 100만원을 함평군에 지역인재양성 장학금으로 기탁.



무안군회 : 7월6일 무안 승달문화 예술회관에서 무안군기독교연합회, 무안군민족통일협의회와 함께 푸른 한반도 되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사단법인 '녹색연합21' 출범식 개최.

순천시회 : 6월21일 6.25참전용사기념탑 공원 정화작업 실시. 7월18일 엘리시아 웨딩컨벤션에서 '나라사랑 호국·보훈 축제' 개최.

광양시회 : 6월27일 유해발굴 사업 개토식 참석.

구례군회 : 6월25일 한국자유총연맹 구례군지회 주관 제56회 나라사랑 스피치대회 참석. 같은날 화엄사 보훈가족 사찰음식 제공 행사 참석.

보성군회 : 6월25일 분회 이현오 안보교수를 초빙하여 안보강연. 7월1일 득량면 해비치 펜션에서 하계 연수회.

고흥군회 : 나태중 향군 안보교수를 초청, '한반도 정서와 국가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주제로 안보강연.

장흥군회 : 분회 노용균 안보교수를 초청, 장흥중, 장흥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보강연.



영암군회 : 6월25일 군민회관에서 이준희 분회 안보교수를 초청, '잊지말아야 할 6.25전쟁'을 주제로 안보강연.

영광군회 : 여성회는 7월9일 영광 원광 노인 복지 요양원에서 이 미용 봉사활동 전개.

강진군회 : 6월21일 김문석 안보교수를 초청, 지역 내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경상북도 향군

상주시회 : 7월19일 읍 면 동회장단이 참가한 가운데 경주 통일전, 월정교 일대에서 역사탐방행사 실시.

영천시회 : 7월10, 11일 통일전망대, 화

진포콘도일대 역사안보전시관, DMZ박물관 등 강원도 고상일대안보현장 견학행사 실시.



문경시회 : 7월2일 용배공원에서 문경출신 호국영웅 고 김용배 장군 68주기 추모제 엄수.



영주시회 : 여성회는 7월2일 인천 자유공원 및 인천상륙작전 전적지와 광명동굴을 둘러보는 안보현장 견학 실시. 여성회는 6월28일 봉현면 노자리에 위치한 행복한요양원을 방문, 봉사활동 실시.

경남 울산 향군



경남 울산시회 : 7월7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와 산업단지 안보체계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창원 의창 성산구회 : 청년단은 7월14일 웅남동중앙공원에서 시민들이 가져온 고장난 우산을 무료로 수리하고 고치지 못하는 우산천은 시장바구니를 제작, 시민에게 배포하는 봉사활동 전개.



거제시회 : 7월3일 거봉 백병원에서 국립난대 수목원 거제 유치를 위한 시민 홍보활동 전개.

진주시회 : 6월26일 문산 실내체육관에서 진주·거제·통영·고성군 향군 임직원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선 체육대회 개최.

합천군회 : 7월2일 합천군보훈회관에서 보훈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현안 토의.

창녕군회 : 6월28일 창녕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랑스런 대한민국 평화로 미래로'를 주제로 안보강연 실시.

양산시회 : 6월29일 부산대 양산캠퍼

스역 앞 공원에서 '양산시민과 함께하는 건강 숲 길 걷기대회' 개최, 호국의지 개최.

통영시회 : 여성회는 7월7일 통영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회 통영한산대첩 전국서예대전에서 봉사활동 실시.

하동군회 : 옥종면회는 7월9일, 하동읍회는 7월12일 진해해군 사령부 및 해군 사관학교 견학을 통해 국방의무의 중요성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



함안군회 : 6월27일 서산 안보공원, 예산 예당호 일대 안보현장 견학.

함천군회 : 7월10일 함천중학교 미디어실에서 학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향군 황기식 안보교수를 초청, '자랑스런 대한민국 평화로 미래로!'를 주제로 청소년 안보강연 실시.

울산 구 군회 : 7월17일 구 군회 회장단은 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을 예방하고 향군 현안에 대해 논의.

울산 남구회 : 7월10일 울산 4개구 향군 회원들과 함께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제9회 호국보훈가족 한마음 위안행사 참석.

제주도 향군



제주도회 : 7월2일 제주시 해안동 어승생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제조작업과 쓰레기 수거 등 자연정화활동 실시. 7월15일 제주소방교육대 신입소방 공무원 55명을 대상으로 교육대 강당에서 '북한의 실상'을 주제로 나라사랑 안보교육 실시. 7월8일부터 6·25참전 유공자회 등 보훈단체 불우회원 가구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실시.



제주시회 : 아라동회 배건희 회장은 7월7일 로타리클럽 회장 취임식때 받은 쌀200kg을 증정 장애 요양원인 신원복지재단 제주 장애인요양원에 전달.

서귀포시회 : 여성회는 2박3일간 인천, 백령도 일대 안보현장 견학. 동홍동회는 6월30일 전남도민회 복지회관에서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 가족 초청 위로연 개최.

친목단체 활동

한마음 페스티벌 및 체육대회



육군학사장교총동문회(회장 남권희)는 6월22일, 23일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제12회 한마음 페스티벌 및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의정부·강릉지구 전투 전몰전우 추모



포병전우회(회장 이국범)는 6월26일, 27일 의정부지구 전투와 강릉지구 전투에서 산화한 포병전우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행사에 참석했다.

정기총회 및 병과 창설행사



병참동우회(회장 조국연)는 7월10일 국방컨벤션 화랑홀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 및 병참병과 창설 제71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군산 장항 이리 지구 전투 전승기념 및 추모제



해병대전우회(총재 이호연)는 7월13일 군산 은파 전적비 앞에서 군산 장항 이리지구 전투 전승기념 및 추모제를 거행했다.

고 김교수 대위 추모행사



육군종합학교전우회(회장 김정규)는 7월12일 철원군 월정리 공적비 앞에서 제66주기 고 김교수 대위 추모 및 교암산 전투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미망인 위로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회장 강길자, 이하 미망인회)는 8월3일부터 8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6·25전쟁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및 미망인 가정을 위로 방문한다.

방문기간 미망인회는 참전기념비를 참배하고 참전용사 회관과 참전용사 미망인 가정을 방문, 6·25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에티오피아 '강뉴부대' 참전용사의 미망인 40명에게 생활지원금의 명목으로 매월 3만원씩 기부할 계획이다.

회장단 회의



영관장교연합회(회장 박우식)는 7월10일 향군본부 회의실에서 회장단회의를 거행했다.

서부전선 최전방 경계작전 현장 체험



예비역 단체들이 6월25일 육군본부 주관 서부전선 최전방 경계 작전 현장 체험 행사에 참여하여 안보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대를 강화했다.

친목단체 소식 (날짜 순)

- ▲포병전우회 : 8월6일 전우회 회의실에서 임원회의, 8월8일 호창공원에서 자연보호활동.
- ▲해병대전우회 : 8월10일 창원 진동리 전적비에서 진동리 지구 전투 전승기념 및 추모제, 8월11일 통영 장평리 기념비에서 통영상륙작전 전투 전승기념 및 추모제.
- ▲육군종합학교전우회 : 8월14일 향군본부 회의실에서 하반기 운영위원회의.
- ▲갑종장교전우회 : 8월23일 향군본부 회의실에서 상임운영위원 확대회의.
- ▲육군학사장교총동문회 : 8월23일, 24일 총동문회관에서 임원 워크숍.

※ 행사일정은 단체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향군 우대가맹점

▲ 가맹점협약 업소현황

전국 1,480개 업소

▲ 이용방법 :

사용 시 향군회원증, 여성회원증, 장성회원증 제시

*숙박시설, 골프장 등 이용 시 사전 예약

▲ 향군 우대가맹점 찾기

- 향군 홈페이지 (<http://korva.or.kr>) 향군 우대가맹점 검색

*이용 희망지역, 업종 및 상호명으로 검색

- 사용 예정지역 시·도 / 시·군·구 재향군인회에 전화 문의

▲ 신규 가맹점 현황

병·의원/의료기기

- 문산메디플러스내과의원 (경기도 과천시 문향로 93) 031-950-9120 : 10~15%
- 약손안마원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106번지 2층) 031-882-0975 : 10%
- 여주 길치과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14번길 20) 031-885-2857 : 50%
- 차내과의원 (경북 상주시 상산로241 메디컬센터2층) 054-535-4400 : 10%

식당/음료

- 명품숯불갈비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948) 031-536-6606 : 5~10%
- 싸리굴 (휴업소영양탕) (경기도 여주시 어영실로 47) 010-9705-5072 : 10%
- 왕터매운탕 (경기도 여주시 강변로 38) 031-885-0223 : 10%

기타

- 꽃물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56) 031-543-9363 : 10%
- 도리수상저지 (경기도 여주시 점도면 도리 379) 010-9338-8037 : 20%
- 메종글래드 제주 (제주시 노연로 80) 010-4692-1219 : 20~30%
- 안경박사 (경북 상주시 삼백로 76) 010-2674-2263 : 10~30%
- 에스엠통상 경산지점 (경북 경산시 남매로 4) 053-963-0091 : 10%

- 유진도요(도자기) (경기도 여주시 여양로 289) 031-885-7272 : 10%
- 통일자동차공업사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호국로 12) 031-536-5815 : 10%
- 필사운드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753) 031-544-6652 : 10%
- 황박사장기요양기관 (경북 경산시 진량읍 황제1길 86) 053-856-0105 : 10%

▲ 우수 가맹점 현황

병·의원/의료기기

- 노송병원 (인천시 서구 길주로 91) 032-516-5000 : 20~30%
- 대구의료원 (대구시 서구 평리로 157) 053-560-7575 : 10%
- 동작경희병원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46) 02-822-8112 : 10%
- 세움치과 (광주시 서구 치평동 1185) 062-232-2875 : 20~40%
- 용인다보스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082번길 18) 031-8021-2114 : 10%
- 위플란트치과의원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73) 02-432-2275 : 30%
- 통영서울병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603-11) 055-644-1777 : 15%
- 해동병원 (부산시 영도구 절영로13번길 59) 051-412-6162 : 10%

숙박/리조트

- 라마다문경새재호텔 (경북 문경시 새재2길 32-3)

- 054-504-7077 : 특별할인
- 렉시제주요트투어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54-17) 1544-2988 : 40%
- 밀리토피아호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360-1) 031-727-9300 : 10%
-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전남 목포시 상동 1144-7) 061-285-0100 : 30%
- 쇠소깍해당레저타운 (제주도 서귀포시 쇠소깍로 151-8) 064-733-0252 : 40%

기타

- 국민오양병원장례식장 (울산시 남구 야음2동 653-3) 052-269-0119 : 10%
- 그린리군 호텔 인 설악 (강원도 속초시 청봉로 141) 010-6728-2030 : 특가
- 대성공업사 (대전시 대덕구 대화로 169) 042-624-7771 : 10%
- 밀리플라워 (경남 진주시 동진로 162) 055-752-7030 : 10%
- 양기순법무사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38) 041-952-1401 : 10%
- 우등관광 (충남 서산시 안원로 237-1) 041-666-0070 : 10%
- 중앙스튜디오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234) 02-844-1177 : 30%
- 청원한우마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2길 5) 043-241-8855 : 10%
- 청주한우(청우)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47) 043-287-1104 : 10%
- 청풍명월한우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전북로 153) 043-241-6464 : 10%

여행정보

부천국제만화축제 2019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만화축제 부천국제만화축제가 8월14일부터 18일까지 한국만화박물관과 부천영상문화단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2년 연속 '경기도 10대축제'로 선정될 만큼 국내 대표 만화축제로 자리매김한 부천국제만화축제는 올해 22주년을 맞아 '만화, 그 너머'라는 주제로 만화가, 만화산업 종사자, 마니아, 일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5일간 열린다. 만화, 웹툰을 활용한 콘텐츠로 축제를 구성하여 방문객에게 환상과 판타지를 선사할 예정이다. <부천국제만화축제운영위원회 032-310-3077>



대구 국제바디페인팅 페스티벌

대구의 도심관광자원과 공연·문화축제를 연계하여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구 대표축제인 대구 국제바디페인팅 페스티벌이 8월24일, 25일 달서구 야외음악당과 그 주변에서 열린다. 대구 국제바디페인팅 페스티벌은 2008년부터 개최되어 매년 여름이면 생 각나는 대구시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다. 전시·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색다른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행사로 발전하고 있다. <DIBF조직위원회 053-760-1855>



울릉도 오징어축제 2019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축제인 울릉도 오징어축제가 8월5일부터 7일까지 울릉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밤바다를 밝히는 오징어잡이 배의 집어등 불빛 낭만과 오징어와 더불어 살아가는 울릉도 주민들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오징어축제는 울릉도의 비경을 배경으로 동해 바다에서 오징어를 잡아보고, 오징어 건조과정을 체험하면서 각종 오징어요리를 즐길 수 있는 행사다. 지난 2001년 첫 개최 이후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하고 있다. <울릉군 축제위원회 054-790-6391, 6425>



서울프린지페스티벌

1998년 대학로에서 열린 '독립예술제'로 시작되어 매년 여름 문화예술 축제로 만날 수 있는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이 8월15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마포구 증산로87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다. 연극, 무용, 음악, 퍼포먼스, 미술, 영상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예술축제인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은 심사나 선정의 단계가 없으며,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공간을 실험하고, 장르와 형식을 넘나드는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작품 발표를 통해 예술가들과 대중들의 소통을 추구하고 있다.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사무국 02-325-8150>



건강정보

'비알코올성 지방간', 운동·식이요법 중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알코올의 섭취나 지방간을 초래할 만한 다른 간질환이 없으면서 영상의학 검사나 간 조직검사상 간 내에서 지방 침착이 확인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남녀 모두 비만, 제2형 당뇨병,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등이 주요 위험 인자이며, 여성의 경우 고령, 폐경 등도 위험 인자로 작용한다.

증상
특정할 수 있는 증상은 없고 다만 일부 환자의 경우 우측 상복부 불편, 피곤함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복부 진찰에서 간비대로 인해 간이 만져지기도 한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간경변으로 진행할 경우 간경변 자체에 의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진단·검사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간 내에 지방 변화를 확인하고 다른 원인의 간질환이 없다는 사실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술을 마시지 않거나 일주일에 남성의 경우 210g, 여성의 경우 140g 이하의 알코올을 섭취하며, B형 간염, C형 간염과 같은 간질환 검사에서도 음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간의 지방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의학 검사나 간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진단한다.

복부초음파 등 영상 검사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진단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 영상의학 검사는 조직검사에 비해 진단 방법이 수월하지만, 간의 지방 침착 정도가 적으면 진단이 어려울 수 있고 간의 염증 및 섬유화는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혈액 검사에서는 간기능 이상 소견이 보일 수 있는데 AST/ALT가 정상치의 2배~5배 정도 상승하는 것이 제일 흔한 소견이며 γ-GT, alkaline phosphatase 같은 검사 수치가 절반 이하의 환자에서 상승할 수 있다.

치료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효과가 입증된 약물치료나 치료법은 아직까지는 없다. 간 보호약제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효과가 뚜렷하게 입증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지방간에 동반되는 인슐린저항성, 비만,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조절이 중요하다. 운동, 식이요법, 체중감량 등 생활 습관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당뇨 및 인슐린 저항성 치료, 고지혈증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 체중 감량을 하면 인슐린 감수성을 회복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급격한 감량은 간의 염증 및 섬유화를 악화시킬 수 있어 서서히 체중을 줄여가는 것이 좋으며 체중의 7~10% 정도 감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당 등 탄수화물 및 지방 과잉섭취를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다.

총 열량에서 지방보다는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식생활을 고려할 때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운동도 근육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대사증후군을 호전시키는 효과가 있다. 중등도(최대 심박수 50~70%) 유산소 운동(걷기, 자전거타기, 조깅, 수영 등)이 좋으며 주 2회 이상, 1회에 30~60분 정도를 권장한다.

예방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간 발생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만, 제2형 당뇨병, 고지혈증 및 대사증후군 등이 위험 요인이므로 이를 관리해야 한다. 운동, 식생활 개선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식생활 개선 방법으로는 과식을 피하고 영양소가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한다. 기름에 튀긴 음식보다 삶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 당분이 들어간 음료수는 피하며 사탕, 초콜릿, 라면이나 케이크도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향군장학기금
※ 기간 : 6월 25일 ~ 7월 23일
※ 단위 : 기부구좌(기부누계), 1구좌 1만원

▶ 개인
• 향우산업 대표이사 허재수 10(150)
• 경상북도 경주시재향군인회 전 감사 배금원 10(60)
• 대한민국부사관총연합회 고문 정소두 1(6)
• 일반회원 대구시설관리공단 신현우 1(37)
• 일반회원 (취대창농축 오승훈 1(37)
• 일반회원 다온중학교 교사 이미래 1(35)
• 일반회원 우리은행 신현정 2(32)
• 일반회원 JSA 경비대대 이한수 1(19)

▶ 정기기부
• 일반회원 이정호 1(257)
• 권율부대 선거이 연대 강모아 1(47)

♣ 따뜻한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재단 : ☎ 02-417-5887)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도 기부현황을 게시하였습니다.

향군장학기금 기부 계좌 안내
계좌번호 : 국민은행 801701-04-194529
예금주 : 재단법인 향군장학재단

전우여! 어디에 ...
• 1967년 11월23일 입대한 이재희(현 개명 후 이정택)씨가 전우 김양수씨를 찾습니다. 김양수씨 1944년생이며 당시 주소는 전남 진도군 임해면 남선리 2구, 군번은 육군 1182****입니다. <이정택 010-8248-9100>

• 1989년 5월 입대한 김진규씨가 그해 12월부터 1991년10월까지 광주 소재 1118 야공단 185대대 2중대에 근무를 한 전우들을 찾고 있습니다. <김진규 010-9354-0502>
• 고석균씨가 1988년 11월부터 1991년도 3월까지 62사단 181연대 근무했던 수승관 정

용수 중사를 찾고 있습니다. <고석균 010-4112-4682>
• 군복무 당시 22사단 53연대 소속이었던 박성용씨가 연대 운전병이었던 선임 임종근씨와 2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만나 많은 도움 받았던 동기 우공우씨를 찾습니다. <박성용 010-8745-0924>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재향군인신문
발행인 김진호 편집인 안찬희
인쇄인 배성한 간 별 월 간

2019년 4월 1일 등록번호 서초, 라 11768호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서초동, 1365-16)
전화 (02)416-0923 팩스 (02)417-5416

외부필진의 기고문 및 광고내용은 향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보정세보고

판문점 미-북 정상회담과 비핵화 전망

6월 30일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간 미·북 정상회담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꺼져가던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되살리는 실질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 중심의 유엔 대북 제재 압박 강화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한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에 물꼬를 튼 것이다.

이제는 북한의 핵능력과 미국을 주축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와의 접점을 찾아가며 실질적 비핵화를 달성하는 협상을 해야 한다. 팽팽한 기 싸움 속에서 향후 실무 협상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북한 비핵화 협상 전망과 우리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상회담 이후 새롭게 등장한 핵 동결론

‘핵동결’과 관련한 입장은 회의론과 수용론으로 나뉜다.

회의론은 주로 북한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장되고 있다. 판문점 정상회담은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했고, 북한 비핵화에는 본질적으로 기여한 바 없다는 인식이다. 핵동결 거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들에 비해 더욱 진전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선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수용 가능성이 있는 거래이고, 북한의 핵보유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수용가능성도 있는 거래이다. 다만,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핵보유가 고착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나쁜 거래’로 볼 수 있다.

과거 협상 전례에 비춰볼 때, 선부른 핵동결의 수용은 김정은이 노리는 북한의 핵보유 인정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 일부 제재 완화만 가능하게 하는 선부른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를 유지해야 하고, 북한이 이에 관한 포괄적 합의에 수용할 때까지 경제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은 핵동결 수용론으로 주로 핵 비확산 문제를 다루어 온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장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 동결 거래는 일종의 중간 단계 개념이다. 북한의 ‘영변 및 비밀 핵시설’ 동결과 대북 제재를 맞교환하는 중간 단계 합의안으로서 의미가 있다. 즉, 장기적 목표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기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일괄 폐기하지는 못해도 협상 초기 단계에서 핵동결은 좋은 협상 대안이라는 것이다.

과거 북한측 관계자가 ‘핵 프로그램 동결, 감축, 폐기’의 3단계 해법을 제시한 적이 있으므로 북측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제는 제재 완화여부인데, 과연 이러한 북한의 핵 동결에 어느 정도 제재를 완화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전문가는 적고 동시에 일부는 제재를 완화하지 않고 동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핵화 실무협상 전망

미·북간 비핵화 실무협상은 예정된 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구체적 합의 도출은 더디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미·북간 입장차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협상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북한 모두 자신의 입장을 양보하지 않고 보다 유리한 협상을 전개하려 들기 때문이다. 쉽게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데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물질, 핵시설, 핵무기, 운반수단(미사일)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모두 폐기하는 데 더해 생물·화학무기까지도 없애는 것을 비핵화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소위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에는 남한 내 미군 핵무기 공개, 남한 내 모든 핵무기와 핵 기지의 철폐 및 검증, 미국 핵 타격수단의 대한반도 전개 중단, 북한에 대한 핵 불사용 약속, 핵 사용권을 가진 주한미군 철수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가 하노이회담의 결렬을 가져온 것이고 따라서 비핵화 개념의 합의 없이는 미·북 간 협상은 원점을 맴돌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흔히 ‘빅딜’, ‘스몰딜’로 얘기되는 합의를 만들고 이행해 나가는 방식의 차이에 있다. 미국은 지난 25년간 북한과의 협상 경험을 통해 부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방식이 모두 실패했다는 교훈을 토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가능한 비핵화(FVVD)를 포함한 포괄적 합의 후 이를 동시적·병행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로드맵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미국과의 신뢰 수준에서 우선 가능한 것을 합의하고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이행한 후 다음 단계를 협상하는 점진적 방식을 주장한다. 하지만 상호 합의된 최종 목적지와 이에 이르는 비핵화 로드맵 없이는 결국 과거

북핵폐기 원칙 유지하고 한미공조 강화해야

미·북 제네바합의나 6자회담 9·19공동선언처럼 중도에서 멈춰 설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영변 핵시설 폐기에서 그치면 비핵화는 물 건너가고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남는 것이다.

셋째, 영변 핵시설의 가치에 대한 평가도 미·북 간 협상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다. 우리 정부는 최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입구라고 했지만 북한이 한 개의 핵무기도 없던 시절의 영변과 20~6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영변 이외 지역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계속 생산하고 있는 현재의 영변의 가치를 같을 수 없다.

영변의 실제 가치는 비핵화 개념에 합치하고 이행 로드맵이 만들어져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전모가 드러나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무엇을 숨겨놓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턱대고 영변의 몸값을 올려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향후 비핵화 협상 시나리오

지금까지 미국은 빅딜을 추진하며 북한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에도 공식적인 입장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향후 비핵화 협상 시나리오로는 동결딜(freeze deal), 스몰딜(small deal), 빅딜(big deal)의 3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거래로 가는 과정에서 시간만 지연되는 노딜(no deal)의 가능성도 있지만, 거래에서 양측이 교환할 내용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동결딜은 북한이 끝내 미국이 요구하는 포괄적 합의에 동의하지 않고, 역으로 미국이 양보를 하라고 버티기를 시도할 때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안이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과 같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선가도에 휘방꾼으로 등장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거래가 고려될 수 있다.

동결딜은 핵 활동을 동결해야 하는데 영변 및 영변 이외의 핵물질 생산시설과 기타 시설의 활동을 중단해야 하고, 미사일 생산시설과 핵무기 생산시설도 가동을 중단해야 하며, 이들 시설에 대해 동결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핵 시설의 신고, 가동중단, 모니터링이라는 세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때 모니터링의 수준은 북한의 핵 활동 내역을 파악하는 전면적인 검증이 아니라 단지 시설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수준의 단순 모니터링이 될 것이다. 문제는 보상이다. 미국이 관계개선이나 인도적 지원만으로 북한의 핵 활동 동결을 이끌어 낸다면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행동을 이끌어 낼 협상 수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동결딜의 경우에도 제재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핵 관련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일은 북한이 원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이며, 또 가동을 중단하는 것도 경제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북한은 제재 완화 없이 동결딜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만일 제재 완화가 없는 동결딜이라면 북한은 모든 핵 활동을 신고하지 않고 영변에 있는 원자로나 농축우라늄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비핵화 협상의 본질인 미공개 핵시설과 핵물질, 핵무기를 보호하며 시간을 보냄으로써 핵 보유를 굳히려 할 가능성이 크다.

만일 동결딜에 제재 완화가 보상으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때 협상이 북한 중심으로 진행되고 완전한 북한 비핵화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동결딜은 보상 여부에 따라서 비핵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스몰딜의 경우는 하노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이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얻어내는 것이다. 미·북 관계 개선이나 인도적 지원 문제 역시 동시적이고 병행적인 조치로서 협상에 포함될 것이다. 그럼에도 협상의 핵심은 제재 완화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실무협상을 통해 스몰딜이 이루어질 경우 그 출발점은 영변이다. 영변의 일부 시설이라면 영변 마이너스 알파가 될 것이고, 영변과 다른 시설이 함께 포함된다면 영변 플러스알파가 될 것이다. 정확히 어느 정도 규모의 시설이 대상이 될지는 미국의 보상 규모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영변 마이너스알파이든 플러스알파이든 북한의 핵 역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핵물질과 핵무기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는 점이다. 동결딜의 경우 단지 가동을 하지 않는 것을 모니터링 하지만, 스몰딜의 경우 관련 핵시설의 폐기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폐기 이전에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해 어떠한 핵 활동이 있었고, 그 결과 어느 정도의 핵물질이 생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의심 가는 시설을 방문해서 검증할 수 있는 임의 사찰과 자유로운 시료 채취가 가능하도록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역시 쉽지 않은 협상 과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빅딜과 같은 포괄적 합의 방식의 비핵화는 가장 확실한 비핵화 방법이다. 합의한 대로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면 된다. 문제는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핵을 보유하는 협상을 하려는 의도, 만일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가정해도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포괄적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빅딜 방식의 합의는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우리의 대응 방향

핵 없는 북한은 외부로부터 투자 약속을 받은 개발도상국에 불과하다. 핵 없이는 존립하기 어려운 김정은 체제의 모순 역시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하는 데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북한은 계속해서 핵을 일부라도 보유하는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끝내 비핵화 조치를 거부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한다면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폐기에서 북핵 관리로 입장을 선화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빅딜에서 동결딜이나 스몰딜로 방향을 선화하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동결딜이나 스몰딜의 경우 북한 비핵화가 아닌 북한 핵 보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혹시라도 우리의 안보이익이 미·북간의 거래로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1. 철저한 ‘북핵 폐기’ 원칙 유지 및 한미공조 강화

우리 정부는 북한의 ‘불완전한 비핵화 협상’ 시도에 대한 의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 북한이 향후 단계적 비핵화를 강하게 주장하며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시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비핵평화’의 길을 열어가야 할 것이다.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동결입구 비핵화 출구’에서 ‘일괄타결’로 그리고 다시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굿 이너프 딜로 바뀌었다. 더 이상 비핵화 로드맵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북핵 폐기 원칙을 계속해서 견지하면서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을 추진해야 한다.

미·북 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북한의 반대로 인해 미·북 대화에서 한 발 떨어져 있게 될 경우, 우리 국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미공조를 강화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협상의 현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 기간이라는 국내정치적 상황에 쫓겨 동결딜이나 스몰딜을 수용하지 않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이 ‘북핵 폐기’ 원칙을 지속적으로 견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2. 우리 정부의 당사자 의식 견지

정부는 비핵화 협상 당사자로서 북한의 통미봉남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협상의 핵심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동시에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또한 비핵화 과정과 연동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속도조절을 주도해야 한다. 조건 없이 북한의 말만 따르는 것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지 못하고 북한에 끌려가는 것일 뿐이다.

북한의 실질적 변화가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할 말은 하는 남북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3. 북핵 대비 군사역량 강화

북한이 핵보유 지위를 굳힐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정부는 군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한미동맹 및 독자적 군사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다시 연합 군사훈련을 복원해야 한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이를 다시 발전시켜야 한다. 미국의 전술핵 공유 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확장억제 강화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의 첨단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일도 시급하다. 향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바꿀 것에 대비한 독자적 군사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이는 북한이 핵위협이나 핵 공격을 가해와도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구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1. 판문점 미북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 전망과 우리의 대응 방향, 아산정책연구원, 2019. 7. 9

(자료제공 : 호국안보국)